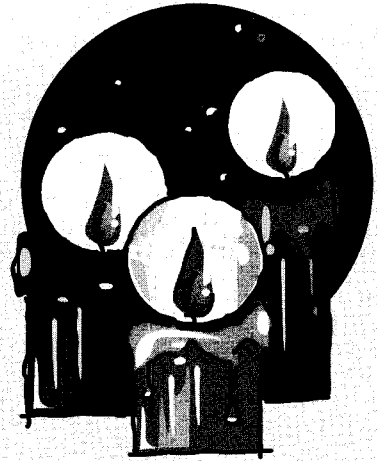


# 딸의 이름으로



곽 병 찬  
한겨레신문 문화부장

**꼭** 광화문에 나가 보리라 다짐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것은 갇지 않으면 안 될 도덕적 채무가 되어 마음 한구석에 웅이처럼 박혔습니다. 내게 그만한 나이의 딸과 아들이 있다는 게 직접적인 이유였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것처럼 어처구니없는 희생에서 예외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미치면 가슴이 덜덜 떨리곤 했으니깐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민족적 자존심에서도 그렇고, 국가적 주권과 관련해서도 가야만 할 이유는 많았습니다.

지난 11월말부터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주변에선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미군 장갑차에 의해 이세상을 떠난 여중생 효순이와 미선이를 추모하는 집회였습니다. 두 아이를 그리 만들고도 책임 없다는 미군과 미 행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조치를 촉구하는 모임이었습니다.

회사가 마포구 공덕동에 있고, 일도 보통 저녁 8시 가까이 끝나니, 평일에는 그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빛은 하루하루 누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침 촛불시위 8일째인 지난 7일 토요일엔 그동안 바빠 참가하지 못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판이 마련된다 하였습니다.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도 촛불을 들리라 다짐하고, 딸에게도 이런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딸도 친구들과 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 사랑스런 내 딸!

7일 저녁입니다. 현대 시내버스는 광화문 정거장에서 서질 않았습니다. 아니 세우질 못했습니다. 정거장 앞에 줄지어 선 전경들이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화문 일대는 이미 시위진압 전경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종로 양편과 태평로 종로1가 양편의 1차선은 이 차들로 메워졌습니다. 전경들은 광화문 지하도 4개 출입구는 물론 한국통신과 세종문화회관으로 이어지는 지하도 양쪽 입구를 봉쇄하다시피 했고, 미 대사관 주변에 사람장벽을 쳐놓았습니다.

집회는 무산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수천명의 전경을 뚫고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게 방치한 것입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고쳐야 하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울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려때 한반도를 유린한 몽고군이 용산에 처음으로 주둔했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왜병, 병자호란 때의 청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한말엔 청나라 군사와 일본 군사가 번갈아가며 그곳에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병탄뒤 일제 주둔군 사령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해방 뒤 진주한 미군 사령부도 거기에 있었고, 6.25전쟁 뒤 유엔군으로 이름을 바꾼 미군도 지금까지 그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역사는 이태원동이라는 지명으로 남아있습니다. 태가 다른 자들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냉전체제와 권위주의 사고에 물들은 많은 지식인들과 미국 중심으로 사고하도록 길들여진 많은 관리들은 미국의 잘못을 따지는 '어리석은' 민초를 교화시키는 것을 그들의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자괴감에 빠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대 그제 아니었습니다. 저녁 뉴스를 들어보니 2만여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깊은 슬픔과 사랑, 뜨거운 분노는 겹겹의 봉쇄를 뚫은 겁니다. 나의 선부른 계산과 심약한 의지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선 분들의 용기와 초심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두 딸의 죽음은 이제 수많은 촛불이 되어 이 사회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철용성 같은 냉전적 인식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성역의 각질을 보여주며, 그 비인간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들이 나서야 합니다. 저 딸들의 이름으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이 땅의 딸들은 고려·조선뎌 공녀로, 일제 때의 군위안부 등으로 누구보다 깊이 상처받고 누구보다 먼저 희생당해야 했습니다. 촛불은 뜨거운 분노로 점화되지만,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사랑입니다.

제 딸은 9시반에나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동시에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고 아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